

브라질 2009년 국가별 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 부상

-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브라질이 국가 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것이며, 주요 선진국의 경제 침체와 헤알화 강세, 그리고 브라질 정부의 세금인하,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경제 정책 및 위기대응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

2009년 세계 각국의 GDP 순위

단위 : 십억달러

순위	국가명	GDP	순위	국가명	GDP
1	미국	14,270	11	러시아	1,255
2	일본	5,049	12	인도	1,243
3	중국	4,758	13	호주	920
4	독일	3,235	14	멕시코	866
5	프랑스	2,635	15	한국	820
6	영국	2,198	16	네덜란드	790
7	이태리	2,090	17	터키	594
8	브라질	1,482	18	인도네시아	515
9	스페인	1,438	19	스위스	484
10	캐나다	1,319	20	벨기에	462

자료 : CIA World Factbook

- 주요 선진국 등의 GDP에 비해 2009년 브라질 GDP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배경으로는 브라질의 수출의존도가 선진국 및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

-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비중이 GDP 대비 약 40% 수준정도인데 비해 브라질의 경우 수출비중이 GDP 대비 13.4%로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출감소가 GDP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
 - 오히려 내수진작으로 위해 브라질 정부에 취한 차량 등 각종 공산품에 대한 세금인하 조치와 금융경색 국면 타파를 위한 다량의 유동성 공급 대책 등이 브라질이 경제위기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데 큰 작용을 했다는 분석
- 한편,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(IBGE)은 세계경제 불황 여파로 2009년 브라질 경제의 GDP 성장률이 2008년 대비 마이너스 0.2%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
- 브라질의 전년도 대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2년의 마이너스 0.5% 기록한 이후 17년만인 것으로 설명
 - 브라질 경제는 글로벌 위기 이후 2008년 4/4분기와 2009년 1/4분기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빠졌다가 2009년 2/4분기 1.4%, 3/분기 1.7%, 4/4분기 2%로 서서히 회복세를 시현중
 - 그러나 IBGE는 2009년 브라질의 성장률이 주요 20개국(G20) 국가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전망 기준 중국(8.7%), 인도(5.6%), 인도네시아(4.5%), 호주(2.7%), 한국(0.2%)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설명
 - 아울러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"지난해 성장 실적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글로벌 위기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"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은 5.7%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